

NOROO

NOROO

SPRING . 2023

VOL. 66

NOROO

NOROO Quarterly Magazine

SPRING . 2023

VOL. 66

SPECIAL THEME

[시간], 가치를 올리다





SPECIAL THEME



[시간], 가치를 올리다

06 COLUMN 인류, 시간을 바꾸다

08 INTERVIEW 인간의 기술 자연의 시간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생명공학센터

12 VIEWFINDER 시간 싸움, NOROO의 제품으로 이긴다

CULTURE GALLERY

16 COLOR SOUND 감각을 확장하는 COLORFUL SOUND

18 TRAVEL 푸르게 번지는 신록의 나날

22 . PAINT FOR ART 1



30 . COLORFUL SPACE



40 . FOCUS ON NOROO 3



NOROO PEOPLE



22 PAINT FOR ART 1 다층의 컬러로 슈퍼플랫을 이루다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줌비 WITH NOROO PAINT

26 PAINT FOR ART 2 격변의 현대미술, 그 속으로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WITH NOROO PAINT

30 COLORFUL SPACE 빈집을 채우는 따스한 만남
다자요 빈집 프로젝트 WITH NOROO PAINT

34 FOCUS ON NOROO 1 NEXT LEVEL [페인트], 가치를 올리다
2023 노루페인트 세미나

38 FOCUS ON NOROO 2 더 새롭게, 더 순수하게 순&수 BI 리뉴얼

40 FOCUS ON NOROO 3 『COVER ALL』 VOL.07 FLEXIBILITY

42 NEW GOODS REFORM THE UNIFORM

44 SPECIAL STORE 젊은 패기로 넓은 시장으로
칼라팩토리

48 NEWS BRIEFING

51 QUIZ

NOROO 그룹 사보 담당자

(주)노루홀딩스 인사지원팀 정석찬 과장
(주)노루코일코팅 인사총무팀 추정민 주임
칼라메이트(주) 경영지원팀 이선화 대리

(주)노루페인트 디지털마케팅팀 황지유 주임
(주)노루케미칼 업무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아이피케이 총무팀 최대섭 차장

(주)노루오토코팅 경영기획팀 안세현 과장
(주)노루알앤씨 경영지원팀 신성민 사원
(주)더기반 홍보디자인팀 김택수 차장

(주)노루오토코팅 인사총무팀 이용채 대리
(주)노루로지넷 경영지원팀 김지안 주임



SPECIAL THEME

[시간], 가치를 올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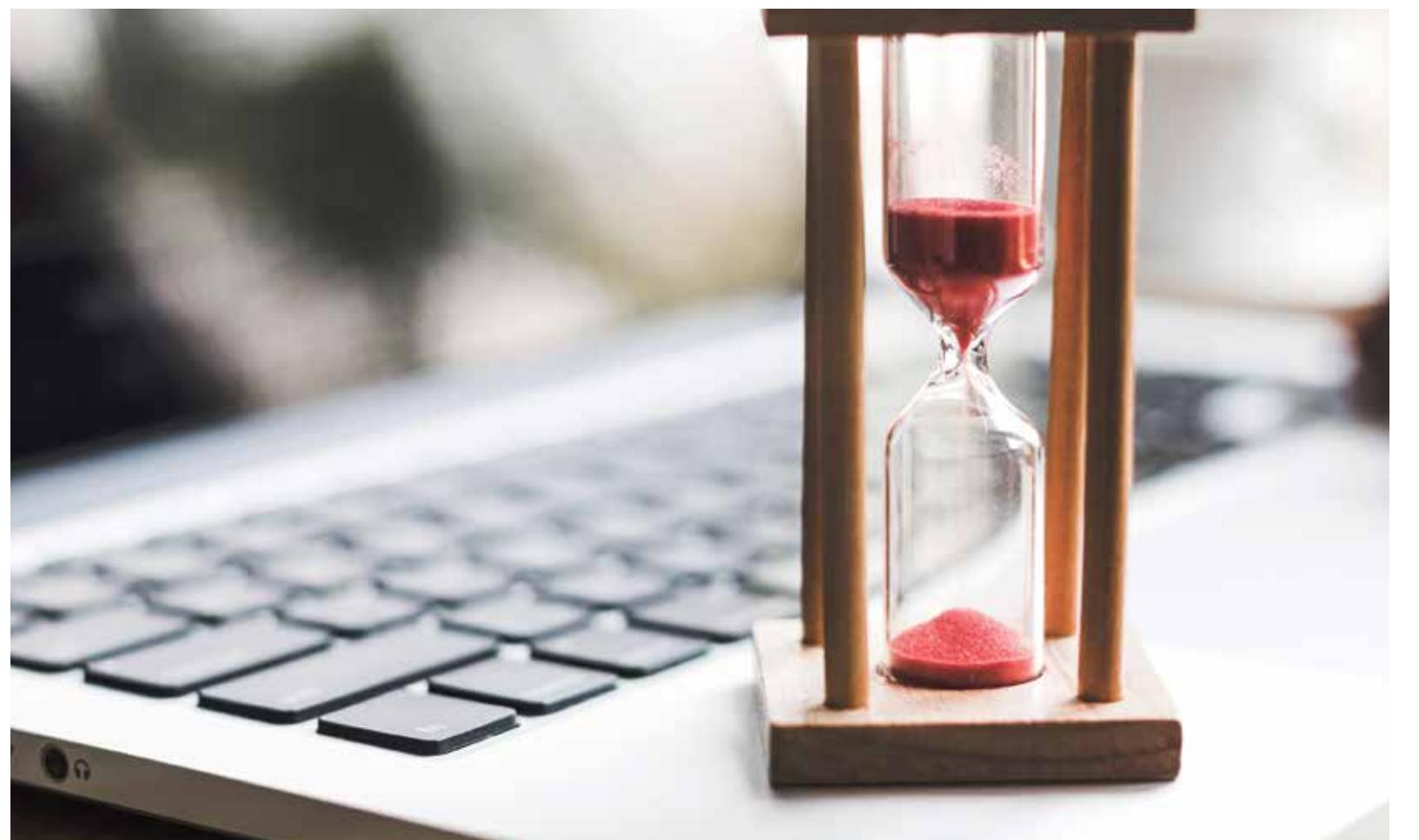
“시간은 가장 위대한 혁신자이다.”라고 프랜시스 베이컨은 저서 『혁신에 관해』에서 기술했다. 『발견자들』의 저자인 역사학자 대니얼 J. 부어스틴은 이어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발견을 ‘시간’, 즉 경험의 조망이라 말한다. 인류는 흐르는 시간을 달과 주일, 날과 시간, 분과 초로 나눔으로써 자연의 단조로운 주기에서 자유로워졌으며 해와 그림자, 모래와 물의 이동, 시간 자체를 시계의 일정한 똑딱거림으로 바꾸어 더욱 유용한 척도로 사용하게 되었다고 말이다. 인간은 자연의 시간을 자신의 가치로 재창조한다.



인류, 시간을 바꾸다

시간을 균등하게 나눈 시계

6시에 설정했던 시계의 알람에 일어나 토스터기의 타이머를 3분에 두고 뺑을 굽는다. 지하철의 시간표에 따라 7시 반 급행을 타고 8시 27분에 출근, 바로 회사 시스템에 로그인한다. 시간을 시계로 쪼개어 넣고 생활을 촘촘히 조직하게 된 흐름 속에서 인간의 하루, 인류의 세태, 그리고 지구의 시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인간이 시계의 숫자라는 유용한 척도에 맞춰 일상을 꾸리게 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5000년 전에 1년의 주기를 알아냈고, 일찍 이 7일을 한 주로 묶어 유용하게 사용했지만 하루를 세분화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해시계, 물시계, 모래시계 등으로 흐르는 시간의 감각을 가질 수는 있었으나 이 시계들은 ‘시간의 측정’, 즉 두 지점 사이의



신조는 자연스럽게 진리로 굳어졌다. 시간은 돈처럼 헤피게 쓸 수도, 아낄 수도, 소유하거나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는 정량화 가능한 자원이 되었고 이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가 산업사회 문명화의 원천이 되었다. 가능한 짧은 시간 안에 많은 것을 정확하게 해내는 ‘시간의 효율’에 방점을 찍으며 산업사회는 발전을 가속화했다.

인류의 오랜 염원이던 시간을 멈추는 영생이나 돌이켜 과거로 여행을 하는 것은 예전히 불가능했지만 기술의 발전은 한정된 시간 안에 더 멀리 가고, 더 빠르게 소식을 주고받으며 더 많은 것을 생산하도록 이끌었다. 기업과 경제를 넘어 정치, 사회, 그리고 예술에서도 변화의 주기가 빨라졌다. 물론 이러한 속도를 환영하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철도와 속달, 증기선과 모든 정보통신수단의 발달에 환호하고 더 많은 발달을 추구하는 ‘시대의 소용돌이’에 대해 일찍이 고테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마지막 시대의 징후’라고 비판했다. 만약 고테가 현시대를 봤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시간, 가치를 높이는 활용

17, 18세기의 시간 의식을 기계시계가 바꾸었다면, 현시대는 컴퓨터와 스마트폰이 그 역할을 넘겨받았다. 제레미 리프킨은 『TIME WARS』(1987)에서 “앞으로 반 세기 안에 컴퓨터는 인간의 시간 지향(time orientation)에 혁명적인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40년이 채 되지 않은 지금, 우리는 그 혁명을 실감하며 살고 있다. 과거에는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지만 인터넷은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정보를 준다. 9시 뉴스가 아닌, 키워드 설정에 따른 알림으로 실시간 뉴스를 보고, 한가할 때 드라마를 정주행 한다. 업무 양상도 바뀌었다. 특히 코로나19로 원격근무와 자율근무제가 확대되면서 모두가 같은 시각에 출근하거나 다 함께 점심시간을 맞춰 밥을 먹는 양상도 줄었다. 기계시계로 인한 집단화에서 시간의 개인화로 방향이 바뀐 것이다. 그러나 시와 때가 없는 정보 접속으로 일과 휴식의 경계도 희미해졌다. 워라밸을 외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일이 휴식을 침범하는 시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오랜 역사 속에서 시간이 금이라는 것을 내재화한 우리 인류는 이제 그 반대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안다. 시간을 금으로 바꿀 수는 있지만 금을 시간으로 바꾸기는 어렵기에 시간의 가치는 금 이상이고, 사회인으로서 그리고 개인으로서 우리는 그 가치를 충분히 누리고 활용하고자 분투하고 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시간 문제가 하나 더 있다. 지금이 마지막 시대일 것이라는 고�ete의 경고는 아직 유효하다. 발전을 거듭하는 동안, 지구의 기후위기는 심화되었다. 이제 인류에게는 “면도날만큼 짧은 시간만이 남았다(제레미 리프킨, 2021 경향 포럼).” 그 짧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것이다.

시간, 금이 되다

역사학자인 멘포드는 “근대 산업혁명의 핵심 기계는 증기기관이 아니라 시계”라고 주장한다. 기계시계의 텁니바퀴는 인류의 시간의식을 변형시켰다. 기계시계의 출현으로 우리는 생활의 기준을 자연의 흐름이 아닌, 시계 속 숫자에 먼저 두게 되었다. 시간을 잘게 쪼개면서 새로운 자본주의 공장제 안에서 작업의 분업도 편리해졌다. 예전에는 자연의 리듬을 따라서 일하던 ‘과제 중심’의 노동은 ‘시간에 의해 정해지는 노동’으로 바뀌었고 시간이 곧 돈이라는 벤저민 프랭클린의



인간의 기술 자연의 시간

농업회사법인 (주)더기반 생명공학센터

시간은 모든 것에 스며 있다. 우리의 식탁 위에도 수천 년의 시간이 쌓여 있다. 접시에 담긴 채소 요리가 10분만에 완성된 것일지라도 그 채소의 생육, 나아가 발견과 개량의 오랜 역사는 헤아릴 수 없이 깊고 길 것이다. 식물에서 작물로, 자연의 시간과 인간의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 더기반이, 그리고 생명공학센터가 있다.



가치를 높이고, 시간을 단축하다

자연 속 식물이 인간의 작물이 되기까지는 가능할 수 없이 긴 시간이 필요했다. 도전과 실패를 거듭하며 식용 식물을 선별해 내고 자연의 규칙을 파악하여 채집에서 농경으로 문화를 발전시키기까지는 우리 인류, 사피엔스 종의 800만 년 역사 중 799만 년이 소요되었다. 이후 인류는 다양한 기술 개발을 통해 더욱 안정적인 먹거리 생산을 추구해 왔으며 현대에 들어 그 개발의 속도는 혁신적으로 빨라졌다. 더기반의 생명공학센터 역시 분자 마커 분석과 조직 배양, 식물 병리 등으로 품종 개발의 시간을 단축하고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과거에는 열매가 열리기 전까지는 열매의 색을 알 수가 없었죠. 맛이 달콤할지 쓸쓸할지는 익은 열매를 직접 먹어봐야 했고요. 그런데 이제는 새싹이 돋아난 단계에서 DNA를 채취해 분자 마커 분석을 해 보면 어떤 색의 과실이 열릴지, 어떤 맛이 강할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선별 시기가 빨라지고 정확성이 높아지면서 품종 육성의 기간이 훨씬 짧아지게 되었습니다.”

마커 연구팀 유재경 과장의 설명이다. 보통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약 10회에 걸친 재배 실험이 필요하다. 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는 보통 일 년에 1회의 재배만 가능하기 때문에 10년이 걸리는 셈. 그런데 이러한 분자 마커로 10년의 품종 육성을 5년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되었고 농민의 요구에 부응하는 종자 선별의 정확도도 높아졌다. 그렇다면 농민들은 어떤 종자를 요구할까.

“농민 분들은 아무래도 더 많이, 더 빨리 수확하길 원하시죠. 출하 역시 시간 싸움입니다. 공급이 많아지는 제철에 앞서 빠르게 출하를 해야 가치를 더 올릴 수 있으니까요.” 생명공학센터의 조화진 센터장은 설명 끝에 한 마디를 덧붙였다. “그 가치를 충족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가 해야 하고요.”



“배양체 연구로 육성 소재를 다양하게 보유할수록
품종 개발에 힘이 실립니다.
배양체 기법 중엔 10년이 걸릴 결과물을
1~2년 안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이러한 스피드 업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해야 할 파트 중 하나입니다.”



현재와 미래, 두 개의 타임 테이블

상품은 개발과 제조, 홍보 및 유통에 이르는 전 과정의 고된 싸움을 거쳐 소비자에게 당도한다. 시장에서 만나는 채소와 과일도 마찬가지다. 흔히 농산물에 대해서는 농부의 수고와 정성을 먼저 떠올리지만 엄연한 상품이기에 치밀한 계산과 경쟁이 존재하고 더 많은 수확량, 더 강한 내병성, 더 편리한 재배와 유통, 그리고 더 빠른 수확으로 얻는 프리미엄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

더기반은 이러한 농민의 요구는 물론 5년~10년 후를 바라보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수요와 필요 또한 예측하여 종자를 개발하고 있다. 그 과정 중 병리 연구실의 허남한 수석부장은 다양한 경우를 대비하는 병 저항성을 연구한다.

“외국에서 어떤 병이 유행하면 우리나라에도 몇 년 뒤에 나타나게 됩니다. 더기반은 분자 마커로 미리 저항성을 알아보고 저항성 소스를 준비해 일찌감치 대비 태세를 갖출 수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요구에 가능한 빠르게 부응하는 동시에 미래의 먹거리 를 준비하는 두 트랙으로 품종 개발을 진행 중이죠.”

조직을 배양해 새로운 소재를 만드는 배양체 연구도 더기반 생명공학센터의 중요한 업무 중 하나이다. “배양체 연구로 육성 소재를 다양하게 보유할수록 품종 개발에 힘이 실립니다. 배양체 기법 중엔 10년이 걸릴 결과물을 1~2년 안에 획득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요. 이러한 스피드 업은 그 가치가 매우 큽니다. 앞으로 저희가 강화해야 할 파트 중 하나입니다.” 배양체 연구를 설명하는 조화진 센터장의 목소리에는 연구자로서의 의기가 서려 있었다.



바꿀 수 없는 자연의 시간

분자 마커 분석, 조직 배양, 병리 실험 등으로 품종 개발의 시간을 최대한 단축한다 해도 절대적인 생장의 기간은 꼭 필요하다. “결국 식물은 때가 되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한 세대의 생장에 필요한 시간은 자연의 순리에 따를 수밖에 없지요. 예측불허인 자연의 영향 아래 있는 농업은 그 진행 속도와 결과가 다른 산업에 비해 느리고 불확실합니다. 하지만 오랜 준비로 한 번 선점한 시장은 그만큼 오래도록 지킬 수 있다는 것이 강점입니다.”

허남한 수석부장의 이야기는 자연의 시간이라는 절대성을 묵직하게 전했다. 육종은 인류의 먹거리를 다루기에 다른 산업보다 유독 공공재적인 특성이 있고, 그래서 윤리적 의식과 사명감이 더욱 동반될 수밖에 없다는 조화진 센터장의 말은 그 무게를 더 했다. 이러한 책임감으로 자연의 시간을 바짝 따라가며 더기반의 육종을 지원하는 곳, 바로 생명공학센터이다.





시간 싸움, NOROO의 제품으로 이긴다

1초, 1분, 1시간 그리고 일 년, 우리가 균등하게 재단해 놓은 시간은 변함없이 흘러간다. 하지만 모두 다른 상황에서 시간은 짧아지기도, 늘어지기도 한다. 같은 시간 동안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효율'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노루페인트는 짧은 시간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높은 효율의 제품들과 긴 시간 유지되는 내구성 강한 제품들로 고객의 시간을 줄이고, 또 늘려주고 있다.



사흘에서 하루로, 원데이 타일 방수

최소 사흘이 소요되는 육실 리모델링을 하루로 단축해 주는 제품이 나왔다. 바로 노루페인트가 2023년 내놓은 신제품 '원데이 타일 방수'. 이 제품은 신축 공사의 경우 바닥 몰탈면에 시공하여 타일 접착제와 타일을 올릴 수 있고 구축일 경우에는 기존 타일을 유지한 채 덧방 시공이 가능한 1액형 속건타입 방수재로, 기존의 육실 리모델링에는 원래의 타일을 제거하고 신규 타일을 작업하기까지 최소 3일이 소요되지만 이 제품은 단 하루 만에 방수 공사에서 타일 공사까지 가능케 한다. 원데이 타일 방수는 타사 제품에 비해 지축 건조 시간은 더 짧아지고 상온 인장 강도(Mpa)와 신장률, 인열 강도(N/mm) 등은 더 높아진, 뛰어난 제품력을 지녔으며 2회 도장 후 방수층 건조까지 4시간이면 완료되어 고객의 시간을 절약해 준다.



견고한 도막으로 오래도록, 내츄럴퍼티 워셔블

시간은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시간에 따라 성장하고 노화하는 것은 생물만이 아니다. 무생물, 인공물도 시간과 함께 낡고, 노후된다. 노루페인트는 내구성 높은 제품들로 이러한 변화를 최대한 저지시킨다. 온도 변화가 심해 결로와 물 닿음, 습기에 노출이 잦은 베란다, 발코니 등 실내이지만 내부와 외부의 성격을 모두 지닌 준외부 공간은 내부용 퍼티를 사용하면 들뜨거나 흐물거리기 쉽다. 하지만 올해의 신제품인 노루페인트의 '내츄럴퍼티 워셔블'은 내부용 퍼티보다 강력한 내수성으로 도막을 오래도록 견고하게 유지하는 동시에 외부용 퍼티보다 높은 작업성까지 보유했다. 강인한 도막을 형성하면서도 샌딩성이 좋아 작업이 쉽고, 크랙 저항성도 월등히 높으며 외부용과 비교했을 때 기포도 적어서 외관까지 깨끗하게 구현하는 이 제품은 습기에 자주 노출되는 공간을 장기간 보호해 줄 것이다.

1회 도장만으로도 충분, 순&수 원터치

대부분의 일반 수성페인트는 2회 도장을 해야 은폐력 및 내구성이 제힘을 발휘해 1회 도장 후 건조하고, 다시 도장하는 과정을 거쳐야 했다. 이에 공사 기간과 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히 따라오는 일이었다. 순&수 원터치 내부용 페인트는 일반 수성페인트와 달리 1회 도장만으로 은폐력과 내구성이 훌륭해 인건비와 공사 기간을 줄여주는 프리미엄급 도료이다. 또한 휘발성유기화합물질과 중금속을 거의 함유하지 않은 친환경 타입의 고급 내부용 수성페인트로 도장 및 건조 과정에서 냄새가 거의 없고 평활성, 작업성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도장 후 외관이 일반 수성페인트보다 매우 부드럽고 깨끗하다. 이 제품은 환경마크 인증도 획득했다.



어디든 작업 가능한 고효율 페인트, 순&수 올커버

실내 분위기를 바꾸고 싶은데, 철재 현관과 몰딩, 벽지용 페인트를 따로따로 사야 한다면?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고 작업 과정도 번거로워질 것이다. 이럴 때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바로 순&수 올커버이다. 순&수 올커버는 부착성이 우수한 특수 애벌전 수지를 적용해 철재 및 기존의 유성 애나멜, 락카의 구도막, 목재, 플라스틱, 콘크리트, 벽지 위 등 다양한 소지에 직접 도장이 가능한 다용도의 고기능성 수성페인트이다. 하도장 없이도 시공이 가능해 간편한 이 제품은 항균/항곰팡이성이 우수하고 휘발성 유기화합물까지 줄였다. 간편하고 빠르고 효과적인 시공을 원한다면 순&수 올커버가 시간을 절약해 줄 것이다.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해 주는 큐피트 마스터

나이와 함께 얼굴에 주름이 생기듯, 건물도 세월 속에서 미세 크랙이 생긴다. 큐피트 마스터는 이 콘크리트 미세 크랙을 탄성도막으로 꼼꼼하게 커버해 균열 내부로 물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누수 및 외관의 불량 현상을 방지한다. 또한 100% 아크릴 애벌전을 사용해 혹독한 기후 환경에서도 우수한 내후성을 발휘해 늘 처음처럼 외관을 보호한다. 외부 노출 500시간 이상의 내후성 테스트에서도 기존 색상 대비 변색 및 쇼킹 현상이 없는 결과를 보여준 이 페인트는 발수성도 뛰어나 콘크리트 증성화 방지 특허를 획득, 이산화탄소와 빗물, 습기에 맞서 건축물의 수명 연장을 돋는다는 것을 증명해 냈다.



CULTURE GALLERY

연두에서 초록으로 점점 진해지는 이 계절은
자연 속 수많은 컬러의 향연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때입니다.
자연의 컬러에서 화면 속 컬러까지,
우리 주위의 수많은 색들을 발견하고 만끽해 보는 게 어떨까요.



감각을 확장하는 COLORFUL SOUND

우리는 컬러로 인해 생각보다 많은 것을 느낀다. 노랑은 봄날의 햇살을, 빨강은 타오르는 열정을, 파랑은 냉철한 이성을 직관적으로 떠올리게 한다. 이러한 컬러들은 서로 병치되고, 섞이고, 다양한 소재에 덧입혀지면서 우리의 감각을 더욱 확장한다. 하나의 컬러가 품은 수많은 가능성과, 여러 컬러가 어우러지며 더 확연해지는 개성을 <페인트 앗수다>의 <컬러 사운드>가 보여 준다.

PURPLE



우아함과 품위를 느끼고 싶다면, 보라

파랑의 이지적 감성과 빨강의 열정적 힘이 결합하여 만들어진 보라는 우아함과 품위를 가진 색이다. 화려하고도 신비로운 보라는 그 농도에 따라 감상의 결이 섬세하게 달라진다. 사랑스러운 연보라에서 뚜렷한 개성을 보여주는 보라, 그리고 묵직한 위엄을 가진 진보라 등 보라의 스펙트럼은 넓다.

<컬러 사운드>의 PURPLE PAINT 편은 보라의 쟁위를 한 겹 한 겹, 세밀하게 살피고 다채롭게 펼쳐낸다. 연보라색 꽃잎에서 떨어진 물방울은 자연 속의 보라색을 발견케 하고, 투명한 젤리에서 추출한 듯한 PANTONE 19-3528 Imperial Purple은 보석 같은 아름다움을 자랑한다. PANTONE 18-3633 Deep Lavender로 페인팅한 조형물 사이로 지나가는 유리구슬은 분홍에서 보라, 자주까지 아우르는 하모니를 영롱하게 만들어낸다. PANTONE 16-3823 Violet Tulip, PANTONE 19-3528 Imperial Purple의 페인트 위를 지나가는 봇소리는 마음을 쓸어내는 듯 감미롭고 PANTONE 13-3820 Lavender Fog, PANTONE 16-3110 Smoky Grape, PANTONE 16-3823 Violet Tulip 등 여러 보라가 화폭 위에서 섞이며 이뤄낸 대리석 무늬는 우아함과 견고함에 마침표를 찍어준다. 고결함이 가득한 순간을 원한다면 이 영상을 클릭해 보자.



SCAN ME



영감과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면, TREND COLO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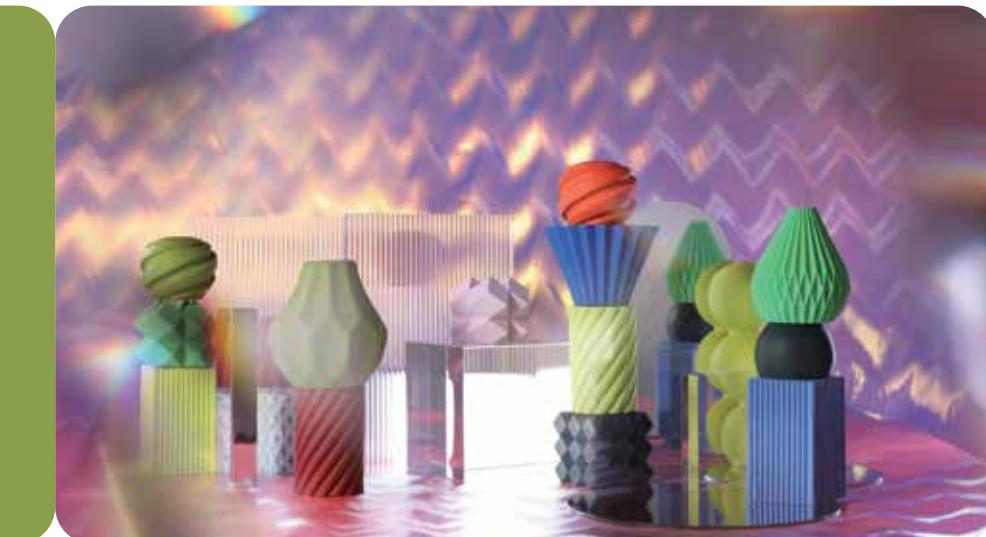
NSDS(NOROO Seoul Design Studio)는 컬러에 관한 세계적 경향과 앞으로의 인사이트를 담은 컬러 트렌드 북『COVER ALL』을 매해 발간하고 있다. 『COVER ALL』 Vol.7은 올해의 주제를 ‘Flexibility’로, 그 키 컬러로는 NR07-005 electric green, NR07-012 classy shadow를 제시하였는데 <컬러 사운드>의 TREND COLOR 편은 이를 모티브로 제작되었다. 매력과 개성이 가득한 색채들은 가지각색의 모형으로 등장해 색채 조합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자극하고 조명에 따라 묘하게 바뀌며 컬러의 활용 방법이 어떻게 더 넓어질 수 있는지 제시해 준다.

NR07-003 mineral orange, NR07-034 the blue, NR07-024 aged blue, NR07-032 vibrant green, NR07-047 glass in darkness 등 『COVER ALL』 Vol.7에서 제안된 컬러들은 페인트 통 안에서 고유의 색감을 오롯이 보여주는가 하면, 키 컬러인 NR07-005 electric green과 NR07-012 classy shadow는 유리의 굴곡 뒤에서, 주름 잡히는 패브릭 위에서 움직이며 컬러의 변화를 느끼게 한다. 컬러 사용에 대한 영감이 필요하다면, 영상화된 『COVER ALL』 Vol.7, <컬러 사운드>의 TREND COLOR 편을 놓치지 말자. 당신의 컬러 감각을 눈과 귀를 통해 확장해 줄 것이다.



SCAN ME

TREND COLOR



푸르게 번지는 신록의 나날



한들한들 버드나무에서 한가롭게

감히 단언한다. 봄은 버드나무에 실려 온다. 치렁치렁 늘어진 나뭇가지에 연둣빛이 돌기 시작하면 봄이 도착한 것이다. 도시의 천변 산책길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친근한 버드나무는 연두색 조명을 단 샹들리에처럼 화려한 데다가 바람에 한들거릴 때면 마음까지 한가롭게 만들어 주는 멋진 나무다. 이 나무들을 눈에 가득 담을 수 있는 곳은 용산 가족공원과 난지 한강공원, 양평 갈산공원 등이다. 용산 가족공원은 ‘가족’을 위한 공원을 표방하는 만큼, 잔디광장과 놀이터, 잘 정비된 산책로를 갖추고 있어 어린 자녀들, 그리고 걸음이 불편하실 수 있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기에도 좋다. 용산 가족공원의 연못가를 빙 두른 버드나무는 촉각으로 느낄 수 있던 봄바람을 눈으로도 보여준다. 버드나무 옆 잔디밭에서 피크닉을 한 후 바로 옆에 위치한 국립중앙박물관이나 국립한글박물관에 들르면 하루의 나들이와 문화 체험의 코스로 완벽할 것이다.

마포구 상암동 난지한강공원도 버드나무 숲을 지닌 곳이다. 올림픽공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공원이니만큼 다양한 식물들이 풍성한 데다가 한강을 끼고 있으니 버드나무가 빠질 수 없다. 구룡역 근처 양재천의 강남돌레길, 양평 갈산공원의 버드나무나루께 길도 봄의 신록과 강의 푸르름을 만끽하기 좋은 코스이다.



일렁이는 신록의 바다, 청보리밭

나무들이 하늘에서 쏟아지는 신록이라면, 봄날의 청보리밭은 땅에서 솟아나는 신록이다. 마치 초록으로 바다를 이룬 듯 물결치는 청보리밭은 눈을 시원하게 정화해 준다. 나무들은 가을까지 푸르지만, 청보리밭은 4~5월에만 볼 수 있으니 놓치지 말고 한 번쯤 꼭 그 너른 별판을 경험해 보길 바란다. 충남의 당진의 카페 ‘피어라’는 청보리밭을 볼 수 있는 케이크 카페로 유명하다. 그 외 서울 양화 한강공원, 연천의 호고루, 보령, 고창, 전북 김제, 경주 황룡사, 제주 가파도 등에서도 청보리밭을 만날 수 있다. 청보리밭을 훑는 바람에 실려 봄에서 여름으로 건너가보는 건 어떨까.



자작나무 숲에서 사부작사부작

수피를 태우면 “자작, 자작” 소리가 난다 하여 이름 붙은 자작나무. 하얀 수피로 기품을 뽐내는 이 나무는 잎이 초록이 되면 그 청량감이 가히 탄산음료 급으로 높아진다. 자작나무는 특히 군락을 이뤄 잘 자라기 때문에 바람이 불 때 초록 앞면과 연초록의 뒷면을 가진 잎이 한꺼번에 흔들리며 마치 축제장의 컨페티가 뿌려지는 듯 황홀한 착시를 보여주기도 한다.

자작나무 숲으로 유명한 곳은 강원도 인제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 4월 30일까지는 산불조심기간으로 입산이 통제되며 5월부터 방문 가능하다. 산 속이고 숲이 넓어 입산 시간도 오후 3시까지로 제한이 있으니 잘 확인하고 가자.

경상북도 김천 수도산에도 자작나무숲이 있다. 근처에 위치한 <국립김천치유의숲> 힐링센터를 함께 즐기는 것도 좋겠다. 목공예, 한방온열족욕, 숲속필라테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기도 남양주시 한강공원 덕소삼파지구에도 짧긴 하나 자작나무 사잇길이 있다. 이곳은 수레국화가 피는 6월에 몽환적 보랏빛 풍경도 만날 수 있다.

NOROO PEOPLE



NOROO는 많은 곳에 존재합니다.

화제의 걸작과 명화가 걸린 전시장에도, 고요하고 완전한 휴식을 위한 여행지에도,
몰입하여 일하는 업무의 현장에도, NOROO의 제품과 역사가 함께합니다.



다층의 컬러로 슈퍼플랫을 이루다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 with NOROO Paint



지난 1월 26일부터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던 <무라카미 다카시: 무라카미좀비>전이 많은 관객과 화제 속에 4월 16일까지 연장 전시 후 종료되었다. 일본의 대표적인 아티스트이자 팝아트의 세계적 거장인 그의 작품 160여 점을 소개하며 국내 최대 규모로 진행되었던 이번 전시는 노루페인트가 함께함으로써 '무라카미 월드'를 이루어냈다.



모든 문화의 수평화, 슈퍼플랫

미술에 관심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무라카미 다카시의 이름을 모를지라도, 그의 작품과 스친 적이 있을 것이다. 특히 그를 대표하는 '무라카미.플라워' 앞에 선다면 "이게 원래 미술 작품이었어?"라고 놀랄지도 모르겠다. 웃는 얼굴을 꽂았으로 에워싼 '무라카미.플라워'는 미술관뿐만 아니라 셀럽들의 패션 아이템을 통해 여러 번 노출되었기 때문. 심지어 명동 길거리에서도 일명 '짝퉁'이 소품으로 판매되고 있을 정도로 인기를 끌어 그 앞에서 무라카미 다카시가 유머러스한 사진을 찍기도 했다. 그렇게 우리 가까이 있던 작가의 개인전이 10년 만에 한국을 찾았다.

부산시립미술관이 현대 미술사의 중심에서 예술관을 공유하는 작가들을 조명하고자 기획한 대규모 프로젝트, '이우환과 그 친구들' 기획전의 네 번째 시리즈로 안토니 곤리, 빌 비올라, 크리스티앙 볼탕스키 전시에 이어 이번 전시를 개최한 것.

무라카미 다카시는 <은하철도 999>, <미래소년 코난> 등 전후의 애니메이션 속에서 성장한 작가로, 일본의 대중문화를 서구 미술에 과감히 편입시키며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현대', '서구와 일본'을 평평한 구조로 해석한 '슈퍼플랫'이라는 독자적인 개념을 세워 새로운 유형의 대중문화 선구자가 되고자 했으며 큰 명성을 얻었다. 이번 전시는 미공개작이었던 초기작부터 회화, 대형 조각, 설치, 영상 작품과 더불어 2022년 작품인 <무라카미 좀비와 품 좀비>까지 160여 점을 소개하는 대형 회고전이었다.





귀엽다가, 기괴하다가, 덧없어지다

<무라카미좀비>라는 메인 타이틀로 열린 전시는 ‘귀여움’, ‘기괴함’, ‘덧없음’이라는 그의 미학을 동명의 섹션 세 개와 ‘원상’이라는 별도의 전시 공간으로 총망라했다. 전시장에 들어섰을 때 가장 먼저 펼쳐지는 <727 드래곤>은 전통적 일본화 배경과 이질적 캐릭터의 혼합, 제목의 숫자가 연상시키는 보잉 기종 비행기와 일본의 화장품 광고 등을 통해 ‘슈퍼플랫’ 정신을 전달한다. 그 옆으로 펼쳐지기 시작한 작가의 시그니처 캐릭터인 귀여운 DOB(도브), 도브가 기괴하게 변형된 탄탄보 시리즈의 거대한 작품들, 해맑은 웃음이 종내는 덧없게 느껴지는 무라카미.플라워, 디지털 복제 인간으로 진화된 아바타 NFT 캐릭터, 끔찍하면서도 눈을 뗄 수 없고 결국엔 실소를 자아내는 <무라카미 좀비와 폼 좀비>까지, 그의 작품들은 과장된 귀여움과 행복, 기괴함 속에서 묘한 슬픔을 보여 주면서 기형적인 현대 문명과 재난 상황 속에서 무력하게 회피처를 찾는 인류의 현재, 우리의 불안을 직면케 한다.



더불어 외부의 ‘이우환 공간’에서 전시된 ‘원상’ 시리즈는 ‘한 획으로 그린 동그라미’라는 뜻의 원상을 스프레이 페인트로 구현하여 그만의 독특한 기법을 제시하고 결국에는 ‘허무’를 향해 나아가며 전시 전체를 관통하는 마무리를 보여준다.

백색의 영지 위에 세워진 무라카미 월드

무라카미 다카시는 자신의 예술을 ‘슈퍼플랫’이라 명명한다. 자신의 예술 안에서 모든 문화와 예술은 높고 낮음 없이 모든 것이 평평해진다는 의미이다. 완벽하게 평면적이지만 제작 과정에 동원되었을 실크스크린의 몇십, 몇 백 개에 이르는 판 수를 짐작케 하는 그의 회화 작품은 ‘슈퍼플랫’의 의미를 다시 새기게 한다. 시간과 과정을 쌓아 올린 실크 스크린 기법으로 엄청난 충돌이 일어난 물감들, 현란하게 맞물린 컬러들은 반짝이는 표면으로 완성되었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컬러들의 심연으로 빨려드는 듯한 흡입력을 경험케 한다. 이 경험에 몰입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전시장을 무결점의 진공 상태로 새하얗게 마감한 노루페인트의 순&수 내부용 화이트 페인팅이다. 노루페인트가 준비한 백색의 영지 위에 무라카미 월드는 성처럼 단단히 존재감을 세우며 자신의 ‘슈퍼 파워’를 전했다. 전시 개최에 대해 이우환 화가가 무라카미 다카시에게 보낸 편지에서처럼 “다이내믹한 표현의 세계”를 열어 보여주며 말이다.



격변의 현대미술, 그 속으로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 with NOROO PAINT

기술의 발전, 사회의 급변 그리고 두 번에 걸친 세계대전의 비극 속에서 20세기 화가들은 미술의 역할을 고뇌하며 전에 없던 표현 방법을 탐구하고 시대의 모습과 고통을 작품으로 승화해 냈다. 미지를 향한 그들의 모색은 큰 진폭을 그리는 격변의 미술 사조와 영원할 마스터피스로 남았다. 마이아트뮤지엄에서 열린 <루드비히 미술관 컬렉션, 피카소와 20세기 거장들>전에서 노루페인트를 배경으로 빛나는 현대미술의 작품들을 만나본다.



정신적 청색, 절대적 백색

루드비히 미술관은 독일 최초의 현대 미술관으로 마이아트뮤지엄은 루드비히 미술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20세기 모던아트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의 주요한 예술 사조와 거장들의 작품을 이번 전시로 아울렀다. 독일 표현주의에서 러시안 아방가르드, 초현실주의, 추상 표현주의 팝아트, 미니멀리즘으로 이어지는 전시의 흐름은 개별 작품의 감상과 함께 화가들이 20세기를 생생하게 겪어내며 일으켰던 예술운동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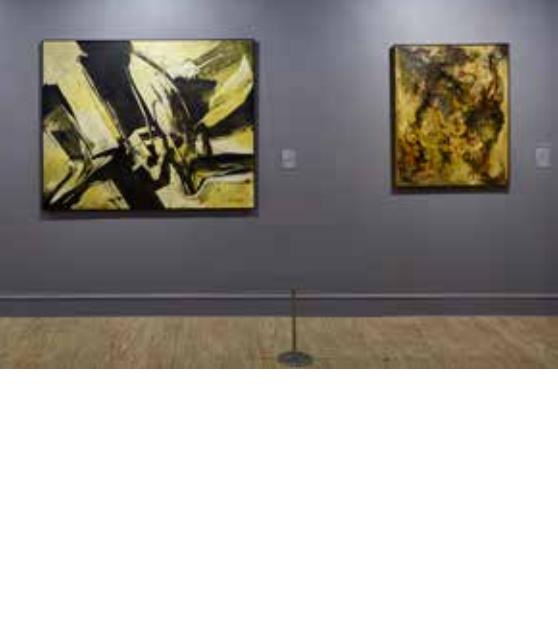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미술사조는 독일 표현주의와 러시안 아방가르드이다. 19세기의 사실주의와 인상파 화풍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청기사파'와 '다리파'의 독일 표현주의 예술운동은 거친 붓자국과 원색의 과감한 색채로 인간의 본성과 원시적 역동성을 표현하려 했다. 같은 시기의 러시아에서는 순수한 기하학적 형태나 색채의 아름다움을 전하려 한 절대주의 등 러시아 아방가르드라 불리는 예술적 탐색이 확산되었다. 칸딘스키의 <흰 붓자국>, 프란츠 마스크의 <소들>, 에른스트 바를라흐의 <웅크려 앉은 노파> 등을 볼 수 있는 독일 표현주의의 섹션은 PANTONE 19-4057 True Blue로 페인팅되어 작품들의 의미를 더해 주는데, 칸딘스키에게 특히 청색은 물질주의에 대항하는 정신성을 상징했기 때문이다. 절대주의의 선구자 말레비치의 회화와 알렉산더 로드첸코의 조형물 등이 놓인 다음 공간은 PANTONE 11-0601 Bright White의 순백색이 색채와 구조의 절대성을 지각할 수 있도록 돋는다.





무경계의 회색, 엔딩의 블랙

두 번째 섹션은 ‘피카소와 동시대 거장들’로 파블로 피카소와 조르주 브라크가 창시하고 20세기 초 서구 미술에 전면적 혁신을 가져온 입체파를 소개한다. 특히 피카소의 작품은 창작 시기 순으로 놓여 화풍의 변화를 실감케 한다. PANTONE 19-4727 Green Heron의 부드러운 청록은 마치 조각난 거울에 비친 듯 쪼개지고 날이 선 그의 그림들을 그윽하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끈다. 이어진 ‘초현실주의부터 추상 표현주의까지’의 섹션을 위해 준비된 컬러는 PANTONE 17-0000 Frost Gray이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프랑스에서 짙고 전후 다양하게 펼쳐진 초현실주의는 이전의 예술 사조에서 추구한 이성과 감성의 합치와 합리가 아닌, 무의식의 영역을 향한다. 직관적 추상, 즉흥적 행위, 격정적 표현을 중시한 이 회화 운동 속에서 우리는 유명한 잭슨 폴록과 윌렘 드 쿠닝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PANTONE 17-0000 Frost Gray는 구상과 비구상을 초월하는 무경계성의 지향을 드러내 주었다.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나 유럽 예술계에도 큰 영향을 끼친 ‘팝아트’는 ‘팝아트와 일상’이라는 네 번째 섹션으로, PANTONE 11-0601 Bright White 속에서 ‘튀어야’ 하고 널리 ‘퍼져야’ 하는 대중문화와 대량소비 사회의 현실을 표현한 앤디 워홀과 로이 리히텐슈타인의 작품 등을 만날 수 있다. 이 화이트 컬러는 다음 섹션인 ‘미니멀리즘 경향’으로 이어져 최소한의 색상과 기하학적 뼈대만을 남긴 작품들의 아우라도 뒷받침했다. 또한 루드비히 미술관 개관 40주년을 위해 제작되었던 비디오 아트의 훌륭한 스크린이 되기도 했다. 마지막 섹션인 ‘독일 현대미술과 새로운 경향’에서는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현대미술의 면면이 소개되었다. 여기에 쓰인 PANTONE 13-3406 Orchid Ice는 차가운 기운이 서린 미묘한 연보랏빛으로 과거로부터 현재로의 이동을 환기해 주었다.

루드비히 미술관의 역사와 독일 및 기타 지역의 미술사, 정치 사회사를 총망라한 마지막 공간은 PANTONE 19-3911 Black Beauty가 대단원의 막을 내려주었다. 그야말로 2023년 블록버스터 전시라 할 만큼 예술사조와 화가들을 폭넓게 다루고 있는 이 전시는 도슨트의 설명과 함께 관람하는 것을 추천한다. 작품은 물론, 수집가와 미술관의 사회적 역할과 공로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보게 될 것이다. 전시는 8월 27일까지 계속된다.



빈집을 채우는 따스한 만남

다자요 빈집 프로젝트 with NOROO PAINT

제주 돌담과 굴나무 너머로 야트막한 집의 지붕이 보이자, 마음은 이미 집의 문턱을 넘어가고 있었다. 내 집이 아닌데도 고향에 돌아온 느낌을 주는 이 그 리움과 아늑함은 어디서 오는 걸까. 아마도 숙소가 아닌 ‘집’이었어서, 비어 있던 집에 따스한 마음들이 모였기 때문이리라. 노루페인트가 함께한 다자요의 빈집 프로젝트, 제주의 ‘안성 강생이집’과 ‘안성 캠프96’을 소개한다.



돌담에서 노랑이 부르다

맑은 봄날의 햇살 아래, 구불구불 돌담길 안에서 노란 대문이 눈길을 잡았다. 지나치지 말라며 “바로 여기예요!”라고 외치는 발랄한 노랑의 환영을 받으며 들어선 안성 강생이집의 첫인상은 ‘밝음’이었다. 계단식으로 낮게 파 넓은 거실의 소파와 높은 천장은 층고를 한껏 키우며 통창으로 자연광을 풍부하게 들이고, 부드러운 크림색으로 페인팅된 내부는 그 햇살로 내부에 은은 한 빛을 드리운다. 노란 커튼으로 햇빛의 농도를 조절하는 두 개의 방은 꿀빛 잠으로 인도할 듯 더없이 아늑하고 통창 너머 정원과 굴 밭은 프라이빗하면서도 탁 트인 개방감으로 펼쳐진다. 거친 질감이 살아있는 나무 기둥과 대문 옆의 녹슨 주황 철문이 아니었다면 이곳이 빈집, 아니 빈 창고였다는 것은 암시조차 없으리라. 오래도록 방치되어 있던 굴 창고를 이렇게 멋진 부티크 스테이로 변신시킨 것은 빈집 재생 스타트업 ‘다자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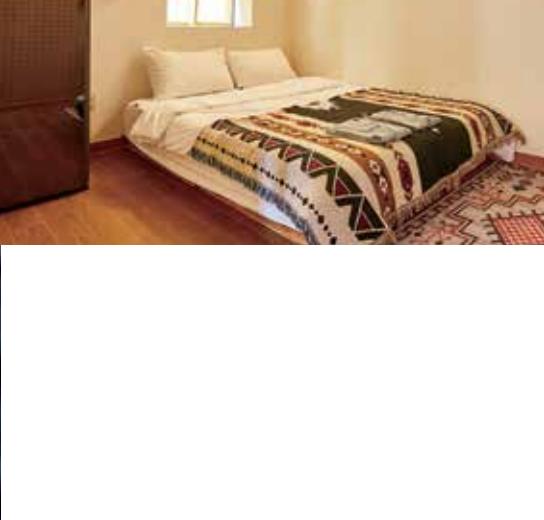


다자요에는 자쿠지들이 마련되어 있다. 고즈넉하고 온전한 휴식을 위한 다자요의 시그니처라 할 수 있다. 자쿠지와 이어진 데크에는 노루페인트의 콘크리트 강화제가 적용되었다.

다자요, 노루페인트와 만나다

다자요는 빈집을 집주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빌려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10년간 숙박업소로 영업한 뒤 다시 주인에게 돌려주는 방식의 '빈집 재생 프로젝트'를 한다. 젊은이들은 대도시로 떠나고, 어르신들 역시 편리한 시내의 아파트로 주거지를 옮기면서 전국적으로 농촌의 빈집은 가파르게 늘어났다. 제주의 경우 2020년 기준 전체 주택의 10%에 달하는 3만 채가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한다. 빈집이 늘어나면 치안과 위생 문제가 생기며 마을이 전체적으로 쇠락해지기 쉽다. 다자요 남성준 대표는 이러한 빈집 문제와 독채 스테이를 원하는 여행객 사이를 '재생'

으로 연결했다. 크라우드 펀딩으로 일반인 투자자들을 모아 빈집들을 고쳐나가자 같은 문제로 고민하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규격화된 호텔, 곁만 번듯한 스테이 대신 호젓함과 정감을 담은 다자요의 숙소들이 여행객들의 눈에 띄면서 예약률도 높아지던 때, 기존 숙박업 사업자와의 충돌 등에 따른 규제로 난항을 겪었던 다자요는 2020년 정부의 신 산업 갈등 조정 메커니즘인 '한걸음 모델' 첫 사례로 선정되면서 다시 날개를 달았다. 그리고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에 참여하고 있던 노루페인트를 만나 빈집 재생을 함께하게 되었다.



안성 캠프96에도 녹슨 철문이 남아 있다.
다자요는 과거와의 연결고리를 남겨 집의 역사를 잊고자 한다.
외벽의 꽃무늬와 육각무늬도 옛 집의 목수가 일명 "끼를 부린" 흔적이라 최대한 보존했다.

또 와요, 다자요

노루페인트의 도료로 마감된 안성 강생이집, 안성 캠프96의 특징은 동물, 그리고 자연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더욱 안락한 반려견 동반 여행을 위해 꾸며진 안성 강생이집은 개가 인식할 수 있는 노랑을 포인트 컬러로 사용했고, 바닥에도 미끄럼 방지 기능을 더했다.

안성 강생이집이 위치한 골목에서 더 안쪽으로 위치한 안성 캠프 96은 캠핑은 좋아하나 불편함은 줄이고 싶은 이들을 위해 '스테이'에 '캠핑'의 느낌을 더한 숙소이다. 밤샘수다와 불멍이 가능한 야외 공간, 어린이들이 특히나 기뻐할 캠핑카와 잘 갖춰진 캠핑 도구들이 낭만을 더한다. 농막이었던 집의 들보를 살려 마감한 천장은 캠핑의 와일드함을 내부에서도 느낄 수 있게 해 준다. 이러한 목재에는 노루페인트의 벌수제로 습기와 곰팡이를 잡아주었다. 내외부의 합판, 목재, 철재, 벽체 및 데크 등 다양한 곳에 도료를 시공함으로써 다자요 측에는 보다 정확한 시공 결과를 제공하고 노루페인트는 여러 사례를 수집해 서로 시너지를 얻는 셈이다.

안성 캠프 96의 푹신한 빈백에 앉아 초록 문 너머로 굴나무를 바라보자 모든 긴장이 스르륵 풀리는 기분이었다.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깃든 것은 새와 바람의 소리뿐. 꿀꽃이 필 때는 향기까지 더해지리라. 다자요에 또 와야 할 이유가 충분하다.

NEXT LEVEL [페인트], 가치를 올리다

2023 노루페인트 세미나

“우리가 함께 만드는 차원이 다른 새로운 가치, 노루페인트 세미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장한아 아나운서의 낭랑한 목소리가 2023년도 노루페인트의 온라인 세미나 시작을 알렸다. 특약점주를 위해 마련된 이번 세미나는 그간 페인트의 가치를 전파해 온 노루페인트의 활동과 2023년에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자세히 틀어보는 자리였다.



특약점과 함께, 고객과 더 가까이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도움 속에 노루페인트가 정의한 페인트의 가치는 점점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올해 세미나의 슬로건에는 ‘NEXT LEVEL’이라는 화두를 두었습니다. 이는 다음 단계를 위한 새로운 도전이자 한 차원 높은 도약을 위한 의지입니다.” 노루페인트 조성국 대표는 개회사에서 인사를 전하며 ‘NEXT LEVEL’이라는 화두에 무게를 실었다. 2022년, 노루페인트는 ‘가치를 올리다’를 통해 노루페인트의 다양한 사업을 조명하며 단순 건축 자재로 인식되어 오던 페인팅의 가치를 재발견하고, 제 위상을 찾도록 노력해 왔다. 이 모든 활동은 지명구매의 기반을 형성하기 위한 기초 작업이자 함께하는 미래를 위한 발걸음으로, 올해 노루페인트는 ‘NEXT LEVEL’로 그 속도를 높이고 있다.



먼저, 유통사업부는 제품 개발에 주력하는 동시에 현장 작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배차시스템화를 이루어 특약점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을 약속했으며 D2C(Direct to Consumer)를 통해 고객의 경험과 데이터를 획득하여 브랜드 지지층을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마케팅 역시 NOROO 서포터즈 활동의 전국적인 확대 운영, 소통과 상담 기능을 업데이트한 NOROO 애플리케이션 NOROO 파워업의 리뉴얼 등을 소개하며 앞으로 더 많은 커뮤니케이션과 활동으로 노루페인트를 찾는 고객을 넓혀갈 것임을 공언하였다.

이어서 공업사업부는 NOROO의 하이엔드 기술력을 더 다양한 제품에 확대해 나갈 것을 다짐하였으며 국내 자보용 도료 시장 업계 M/S 1위인 노루페인트의 자보사업부도 완벽한 색상 구현과 친환경 고품질 제품 개발 등으로 혁신을 계속 이어갈 것임을 자신 있는 목소리로 전했다.



이외에도 브랜드 미래 가치를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순&수 BI 리뉴얼,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돌아온 두 마리 노루 로고의 예고, NOROO 컬러 가이드의 쇄신 등 반가운 소식들이 차례차례 소개되는 가운데, <페인트잇수다>의 꼬박사와 컬러몬은 그간의 온라인 마케팅 활동들과 앞으로의 상생 캠페인을 생생한 목소리로 들려주며 'NEXT LEVEL'을 '특약점과 함께, 고객과 더 가까이'라는 말로 압축해 전달했다.



앞선 기술력의 신제품으로, NEXT LEVEL

이번 온라인 세미나에는 노루페인트가 애심 차게 준비한 신제품 10종에 대한 소개도 함께 마련되었다. 유성 스테인 수준의 우수한 내구성과 내후성, 수성 스테인의 작업성과 USDA 인증의 친환경성을 보유한 프리미엄 수성 스테인 '더 스테인'은 내부와 외부 목재 어디에나 사용 가능한 프리미엄 수성 스테인으로, 1회 도장으로 마감까지 가능해 작업 시간과 비용을 절감해 준다. 또한 인기 컬러로 구성된 11개의 시중색 외에도 다양한 컬러 조색이 가능해 선택의 폭까지 넓혔다.

'순&수 흡방습 페인트'는 콘크리트 벽면과 벽지 사이에 시공하여 콘크리트로부터 방출되는 유해한 물질을 막아주는 1액형 벽지 하도재이다. 흡습 및 방습과 함께 항균, 항곰팡이 성능까지 부여한 이 제품은 작업 과정이 복잡한 타사 제품과는 달리 일반 수성페인트처럼 간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다. 국토부의 '건강친화형 주택건설 권장기준'을 충족하는 순&수 흡방습 페인트는 점점 증가하는 친환경 수요 및 이를 위한 특수 시공 분야에 신흥 강자로 서리라 기대된다.

빠른 건조와 우수한 접착력, 뛰어난 방수 성능의 '원데이 타일 방수'는 1액형 방수재로 2회 도장 후 방수층 건조까지 4시간이면 완료되어 욕실 등의 내부 방수 및 타일 공사를 하루 만에 시공 가능하게 해 준다. 기존 타일 위에 덧방 시공도 가능한 데다가 시간의 단축으로 인건비를 절감하고 현장의 빠른 마무리로 고객의 만족도까지 높이니 최상의 방수 시공 솔루션이라 할 수 있다.



그 밖에도 욕실 바닥과 내외부 벽면에 방수 성능을 부여하는 '굿바이 누수 플러스', 강력한 부착력으로 유리, 시트지 등 실내 다양한 소재에도 사용 가능한 '순&수 젯소SUPER', 투명 상도 바닥 도장 전 균열면을 정리해 미려한 외관을 구현하는 '크린폭시 멀티 몰딩재' 등이 홍보 영상과 함께 소개되며 'NEXT LEVEL'을 향한 노루페인트의 기술력과 제품력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다. 지난해 보다 더 업그레이드된 올해, 그리고 그 이상의 'NEXT LEVEL'을 향해 [페인트]의 가치를 드높이며 노루페인트가 모두와 함께하는 노력은 2023년에도 계속될 것이다.



더 새롭게, 더 순수하게 순&수 BI 리뉴얼

어디나, 누구나, 전문가처럼 ‘순하고 수하게’ 바를 수 있는 순환경 수성페인트 순&수. 노루페인트의 대표 브랜드로서 12년간 꾸준히 사랑받아온 순&수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감각적이고 트렌디하게 다가가고자 최근 BI(Brand Identity)를 새로이 리뉴얼했다. 보다 또렷해진 녹색 물방울로 맑은 느낌과 시각성을 높인 새 BI를 만나본다.



맑고 명료해진 녹색 물방울

순&수의 녹색 물방울이 달라졌다. 음영이 있어 사실감과 입체감이 두드러졌던 기존의 물방울에서 라인과 색상만 깔끔히 살려 상징성을 높인 물방울로 변화했다. 황금 비율에 입각해 과학적으로 설계된 심볼에서 순&수 고유의 물방울 콘셉트는 일관되게 유지하면서도 더 간결하고 완성도 높은 형태로 보완되었으며, 이에 어울리는 새로운 로고 타입은 곡선과 직선을 가미한 디자인으로 트렌디하고 가독성이 우수하도록 조정되었다. 세리프(획의 시작이나 끝의 돌출 부분)가 살짝 남아있던 서체에서 완전한 산 세리프(세리프가 없는 서체) 서체로 바뀌어 명료성이 확실해진 것. 덕분에 순&수 로고가 가진 두 개의 시옷은 마치 웃는 눈처럼 보이기도 한다. 웃음을 연상하게 되는 것은 역시나 동글게 바뀐 하단의 영문 로고 soon&soo의 영향도 있다. 기존의 서체보다 동그라미의 원형이 강조되어 나란히 놓이자 귀여운 눈동자 같은 효과를 주는 것. 이로써 가시성 또한 더 높아졌다. 또한 다양한 위치와 조합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디자인되었기에 어디에 놓이건 공간의 낭비를 최소화하게 될 것이다. 심볼 및 로고의 컬러도 살짝 다듬어졌다. 좀 더 밝고 맑은 단일 색상의 연한 녹색 심볼을 진한 회색의 하단 영문 로고가 안정적으로 받쳐주는 모양새다.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의 확고한 입지를 굳히다

순&수는 친환경 프리미엄 브랜드로 2011년 런칭된 이래 ‘순한 페인트, 깨끗한 페인트, 친환경 페인트’라는 인식을 넓히며 다양한 제품군으로 시장의 사랑을 받아왔다. 처음 런칭된 제품은 ‘순&수 내부 수성페인트’와 외부 수성페인트인 ‘순&수 차열도료 1급’ 등으로, 순&수 내부 수성페인트는 식품 포장재, 의료용품에 사용하는 ‘EVA수지’를 사용하여 타사 페인트보다 냄새를 70% 이상 획기적으로 개선한 데다가 유기화합물과 중금속 등이 거의 들어있지 않은 프리미엄급 친환경 제품이었다. 순&수 차열도료 1급은 국내 최초로 개발된 건물 외벽용 차열 도료 제품으로 태양광을 반사하고 열의 전도를 저연시켜 에너지 절감을 도와주는 친환경 특수 기능성 프리미엄 페인트였다. 이후로도 노루페인트는 순&수 올커버, 순&수 원터치, 순&수 우드스테인 등 다양한 제품을 개발하여 소비자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친환경적 공간 조성을 도움으로써 순&수의 인지도를 높이고 대표 브랜드의 자리를 계속 확대해 왔다. 이번에 개선된 BI를 통해 노루페인트는 변화하는 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브랜드 이미지를 올곧게 전달하고 시장에서의 입지 역시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계획이다.

『COVER ALL』 Vol.07 FLEXIBILITY

컬러의 무한한 가능성을 연구하고 이를 업계와 사회에 널리 전하는 NSDS(NOROO Seoul Design Studio)의 컬러 트렌드 북, 『COVER ALL』의 일곱 번째 에디션이 발간되었다. 현 사회의 현상을 파악하고 변화의 경수를 추출해 선보이는 『COVER ALL』의 올해 주제는 'Flexibility(유연성)'이다.



Mobility, Object 그리고 Space

NSDS는 장기간 축적해온 레퍼런스를 통해서 현재의 트렌드와 디자인, 컬러 경향을 직관적이고도 논리적으로 분석, 창조적 영감과 실행 방법을 제시하는 컬러 전문 컨설팅 그룹이다. 『COVER ALL』은 NSDS가 연 1회 발간하는 트렌드북으로, 디자이너를 비롯해 마케팅, 기획 전문가의 성공적인 디자인 전략 수립을 돋는 솔루션이자 지침서이다.

2023년, 새로운 것이 빠르게 넓어가는 가공할 변화의 속도, 예상이나 전망을 무력하게 하는 불확실성의 미래, 완전무결함보다 개선을 통해 점진적 완성을 향해 가는 디지털식 변화 과정의 현재 속에서 우리가 공존과 발전을 위해 취해야 할 최선의 태도는 무엇일까. NSDS는 『COVER ALL』 Vol.07에서 유연함과 확장성을 그 답으로 제시하고 컬러 역시 다양한 적용과 생존에 필요한 유연성을 가진, 중성적이면서도 각각의 색이 뚜렷이 강조되는 색조들을 제안한다. 특히 올해는 'Mobility', 'Object' 그리고 'Space'로 내용을 세분화하고 각각의 책자로 구성하여 각 분야별 전문가들이 좀 더 쉽고 빠르게 정보에 접근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유연성을 위한 중의적 컬러

각 책자는 현재의 경향, NSDS Color Pick, 컬러들의 조화를 보여주는 Color Harmonies, 한눈에 컬러들을 파악할 수 있는 Color Analysis의 Part 1 INSPIRATION & COLOR와 디자인의 흐름, NSDS Trend Pick, C.M.F Proposal, C.M.F Change Point로 이루어진 Part 2의 C.M.F & APPLICATION으로 구성되어 트렌드와 컬러, 소재의 면면을 세심하게 살핀다.

특히 이번 호에 제안된 컬러들은 디지털 미디어에서 매력이 극대화되는 것으로, 중의적이고도 가벼움과 무거움 그리고 개성이 뚜렷한 색채들이다. 서로의 영향 아래 미묘하게 변화하는 이 색채들은 원색들보다는 중성적이며 동시에 White나 Black 또는 Gray의 영향으로 차분해 보이지만, 간혹 Acid한 색감과 가벼운 형광색들이 적절하게 혼합되면서 새로운 변화를 드러낸다. 전체적으로 뉴트럴 계열이 아주 미세하게 변화하면서 넓게 제안된 것도 'Flexibility'를 표현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대표적인 키 컬러는 색감에 대한 전통적 관념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변화의 흐름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색, 자연과 인공 그리고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상반되는 감성들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는 중의적인 성질의 색

으로, NR07-005 electric green, NR07-012 classy shadow이다.

이번 『COVER ALL』 Vol.07은 NOROO 그룹이 밀라노에 설립한 디자인 연구 및 컨설팅 기관인 NMDS(NOROO Milan Design Studio) 그리고 뉴욕 베이스의 Mue Studio와 협업을 통해 독자적인 자료와 이미지를 확보하여 일반 트렌드 자료와는 차별화된 정보를 제공한다. NSDS는 일곱 번째 『COVER ALL』을 전 세계 크리에이터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디자인 박람회 '2023 밀라노 디자인 위크(Milan Design Week 2023)'에서 가장 먼저 공개하여 대한민국 컬러·디자인의 감성과 산업의 우수성을 알렸다.

Reform the Uniform

NOROO는 약 20년간 사용해 온 유니폼 디자인을 지난해 리뉴얼하면서 기존의 재고 유니폼으로 업사이클 굿즈를 제작했다. NOROO의 밝은 녹색과 탄탄하고 편안한 원단은 에이프런, 페인트 툴 토트백, 버킷햇 등 워크웨어로 재탄생하여 자원을 소중히 여기는 NOROO의 마음을 전한다.



자원의 가치, 브랜드의 역사를 잇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큐클리프 매장.バス락バス락, 투둑투둑, 드르륵 소리가 시간을 두고 이어진다. 사람의 손과 기계가 차근차근 순서를 지켜 맑은 바 제 할 일을 하는 작업의 소리이다. 그 작업의 대상은 NOROO의 유니폼.

약 20년간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은 물론 NOROO인의 긍지를 지켜온 유니폼의 명예로운 은퇴와 자원의 순환을 위해 NOROO는 업사이클링을 선택했다. 옷의 오염을 막으며 더 편안한 작업을 도와주는 에이프런, 각종 도구를 체계적으로 수납해 운반해 줄 페인트 툴 토트백, 햇빛을 가리며 패션 센스까지 더해줄 버킷햇, 총 세 개의 워크웨어 시리즈다.

업사이클링은 통상적인 원단과 자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기존 옷에서 활용 가능한 부분을 잘라내거나 손상 없이 떼어내야 하는 만큼 시간도, 수고도 많이 드는 일이다. 만 폐기물을 줄이며 자원의 가치를 높힐 수 있기에 그 가치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이 크다. NOROO는 자원의 가치와 함께 브랜드의 역사적 의미를 미래로 잇기 위해 업사이클링을 진행했으며 그 파트너로 큐클리프를 선택했다. 큐클리프는 앞서 환경재단, 스타벅스, 삼성증권 등과 함께 콜라보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커스터마이징 업사이클링을 선보여 온 사회적 기업이다.



Reform & Refresh

이번 NOROO 유니폼의 업사이클링에는 특히 브랜드의 역사까지 덧대어지며 특별한 의미를 전했다. NOROO의 창립 초기에 사용되었던 두 마리 노루의 로고를 자수 패치로 제작해 각각의 워크웨어에 부착한 것. 춘추복 상의에 동잠바의 밝은 녹색을 포인트로 사용한 에이프런은 튼튼하고도 경쾌한 감각을 전하고, 두툼한 누빔의 동복 상의를 이용해 뾰족한 작업 도구도 안전하게 수납할 수 있는 토트백은 리버서블 디자인으로 활용도를 높였다. 동복을 재활용한 버킷햇에서는 스트리트 패션의 힙한 감성이 느껴진다. 두 마리 노루의 로고는 레트로 무드와 함께 자연을 향한 NOROO의 마음과 오랜 역사,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하고자 하는 ESG 경영 이념까지 담아 이 모든 굿즈에 단단히 박음질되었다.

NOROO는 이번 '유니폼 ESG 굿즈'의 제작 기념으로 SNS를 통해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는 한편 제작 과정을 소개하는 동영상 등으로 업사이클링의 가치를 더 널리 알렸다. 앞으로도 NOROO는 폐기물을 줄이고 재활용률은 높이는 다양한 시도로 ESG 활동의 폭을 넓혀갈 것이다.

젊은 패기로 넓은 시장으로

칼라팩토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항로의 산염마을 입구에 위치한 노루페인트 특약점 칼라팩토리의 매장 앞에 서면 좌우로 일산의 끝과 끝을 볼 수 있다. 일산을 비롯해 경기도에 NOROO의 컬러를 입히겠다는 목표로 칼라팩토리 조태근 대표는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 만 29세 대표의 젊은 패기가 넓은 시장을 향한다.



색다른 특약점, 남다른 이력

이 매장, 심상치가 않다. 외관의 전면을 네이비 컬러로 페인팅한 것부터 색다르다 싶었는데, 내부에 들어서니 곳곳에 ‘힙’함이 느껴진다. 형광핑크의 네온, 눈에 띄는 독특한 그림, 그리고 큰 모니터에 흘러나오는 케이팝 뮤직 비디오까지, 분명 이 분위기는 대표의 ‘끼’가 만들어낸 것이리라. 아니나 다를까, 색다른 특약점답게 조태근 대표의 이력도 남달랐다.

“특약점 개업 대표로는 제가 최연소라고 하더라고요. 2021년, 스물일곱이었어요.” 등글등글 인상 좋은 얼굴에 미소를 가득 채우며 그는 대답했다. 산업디자인을 전공하고 칼라메이트에서 약 4년간 근무하던 그는 페인트의 매력에 빠져 개업을 결심했다. “제가 상담하고 조색한 컬러와 페인트가 누군가의 집과 공간에서 오래도록 유지된다는 게 뜻깊게 다가왔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좋아하거든요. 보다 젊을 때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영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개업을 위해 교통이 편리하고 일산이 한눈에 보이는 현재의 위치를 선택한 그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까지 문을 열고, 찾아오는 고객 한 명 한 명을 쟁겼다. 매장의 냉장고엔 아침 대용의 두유와 비타민 음료, 커피 등을 가득 채워 나누었으며 틈나는 대로 인근의 인테리어 업체를 찾아 명함을 돌리며 영업을 했다. 연고도 없이 네트워크를 개척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조태근 대표에게 큰 허들은 아니었다.

“칼라메이트에 있을 때도 제품을 들고 지역 유통체인점 본사에 무작정 찾아가 거래를 뚫은 적이 있었거든요. 덕분에 포상도 받았죠.” 사람에게 진심을 다하는 그에게 하나 둘 단골이 늘고 귀한 인연도 생겼다. “입구에 걸린 그림은 이건우라는 화가의 작품이에요. 가끔 페인트를 사러 오셨는데, 나이대가 같아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림을 그리신다기에 조색하고 남은 팬톤페인트를 드리곤 했어요. 그 뒤로 팬톤페인트로 작품을 하시더니 이번에 하얏트 호텔에서 전시를 하게 되셨다고 해요. 제게 고마움의 표시로 저 그림을 선물해 주셨어요.” 이건우 작가의 <Baran Series> 중 하나인 이 작품에서 칼라팩토리가 일으킬 바람도 그려지는 듯하다.



다품종 신제품으로 시장을 넓히다

칼라팩토리는 사장도 짧지만, 제품도 아주 짧다. 신제품이 아주 많다는 소리이다. “노루페인트는 정말 제품력이 좋아요. 적재적소를 위한 새로운 제품을 잘 만들거든요. 많은 연구와 수고를 통해 만든 신제품으로 고객도 돋고, 저 또한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조태근 대표는 신제품 출시 전에 먼저 적용해 보고 보완점을 찾아내는 노루페인트 서포터즈로 활동하며 매장에도 신제품들을 다양하게 구비해 두었다. 칼라팩토리가 문을 열 때부터 함께해 온 서울3지점의 김현조 대리 역시 그 점을 이 매장의 장점이자 개성으로 꼽는다. “새 제품이 나올 때마다 열심히 실험해 보시면서 다품종으로 판매를 다각화하고 계세요. 빠른 피드백으로 저희에게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시죠.”

김현조 대리는 처음에는 연령층이 높은 업계에서 짧은 대표가 고생하지나 않을까 염려했다고 한다. 하지만 나이는 오히려 장점이 되었다. 일부 고객의 거친 말투나 하대에 고전할 때도 있었지만, 아들처럼 잘해주는 이들도 많다. 짧은 감각과 친절하고 세심한 상담을 찾아 일부러 오는 DIY 고객도 상당하다. 세련된 매장 디스플레이와 계절마다 컬러를 달리하며 바꿔 입는 유니폼은 그러한 손님들을 계속 늘게 할 것이다.



앞으로의 포부를 묻자 조태근 대표는 조심스러움을 섞은 목소리로 “고양, 파주, 일산 Top 5 안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현조 대리는 “지금도 칼라팩토리는 일산에서 꾸준히 명성을 높이고 있는 중”이라고 말하며 노루페인트 역시 전폭적인 지원으로 그 포부를 함께할 것이라 약속했다. 성실과 노력이 더해진 짧은 패기에 든든한 동행이 있으니 넓은 시장을 향한 칼라팩토리의 성장 속도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STORE INFORMATION

칼라팩토리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로 297-4
031.932.7204



NEWS BRIEFING



노루페인트 조성국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훈



에너지 세이버 쿨월, 외벽용 에너지 효율 인증 'CRRRC 쿨월' 획득



더기반, 성공적인 참외 농사를 위한 종자 선택, 재배 관리 정보 제공

(주)노루페인트

조성국 대표, 은탑산업훈장 수훈

노루페인트의 조성국 대표가 지난 3월 15일 진행된 '제50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은탑산업훈장을 수훈했다. '상공의 날 기념식'은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관하는 것으로, 타의 모범이 되는 기업 경영 활동과 국가경쟁력 향상에 공헌한 상공인에게 훈장과 정부 포상을 수여한다.

은탑산업훈장을 받은 조성국 대표는 국내 도료업계의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고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전문적인 색채 연구 지원 등을 통해 도료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았다. 특히 조 대표는 취임 후 글로벌 경기 침체와 원자재 값 상승 등의 악재 속에서도 수급 다각화 시스템을 갖춰 실적 성장을 이뤄내고 친환경과 사회적 책임으로 힘썼다. 국내 최초의 바이오 도료 미국 농무부 인증 획득을 비롯해 친환경 제품의 라인업을 확대하여 탄소중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이 밖에도 지역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차별화된 사회공헌 활동을 적극 지원했다.

노루페인트는 조 대표가 취임한 이후 한국ESG기준원에서 진행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화학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2년 연속 통합 A등급을 획득했다. 또 지난해 서스틴베스트 평가에서도 A등급을 받았다.

조성국 대표는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성장과 발전을 위해

현장에서 땀 흘리고, 품질 혁신을 실천한 임직원의 노력과 열정을 대표해 훈장을 받게 되었다."라며 "임직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에너지 세이버 쿨월, 외벽용 에너지 효율 인증

'CRRRC 쿨월' 획득

노루페인트가 국내 최초로 미국 에너지 절감 도료 전문 인증기관 CRRRC(Cool Roof Rating Council)로부터 'CRRRC Cool Wall(이하 쿨월)'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 CRRRC는 기존의 옥상용 차열페인트 쿨루프(Cool Roof) 인증과 별개로 건물 외벽에 적합한 스펙과 기능을 요하는 외벽 등급 프로그램(Wall Rating Program)을 도입했다. 이는 건물 외벽용 제품을 평가하는 세계 최초이자 유일의 에너지 효율 등급이다. 쿨월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건물 외벽에 적합한 태양광 스펙트럼 반사계(Solar Spectrum Reflectometer) 설정이 필요하며, 초기 평가 이후 3년간 진행하는 노화 시험에서는 건물 외벽 시공에 적합한 각도(90°)로 시험하는 등 외벽 시공 중심의 시험 성적이 요구된다. 이번에 인증을 획득한 노루페인트의 건물 외벽용 차열페인트(에너지 세이버 쿨월)는 적외선 반사와 열 차단 기술을 복합 적용해 태양 반사율과 열 방사율 모두 쿨월 인증 기준을 충족했다. 또 품질 면에서도 KS M 6010 외부 1급 규격의 물성을 만족하고 우수한 내 알칼리성, 내수성, 내세척성, 내후성 등을 갖췄다.

노루페인트는 2015년 옥상용 차열페인트(에너지 세이버 쿨루프)를 출시한 이후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취약계층 시설을 대상으로 쿨루프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제품의 우수성을 알렸다. 최근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탄소 배출 저감 규제가 강화되면서 건물의 표면 온도를 낮춰 냉방 에너지 절감에 기여하는 차열페인트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건축 시장 수요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노루페인트는 국내 최초의 CRRRC 쿨월 인증서 확보로 제품에 대한 고객 신뢰를 확보하는 한편 에너지를 절감할 수 있는 차열페인트 라인업을 더욱 강화했다. 앞으로도 노루페인트는 지구 온난화 등 기후변화와 환경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주)더기반

성공적인 참외 농사를 위한 종자 선택, 재배 관리 정보 제공

참외의 대표 산지인 성주의 농민들은 더기반의 참외 품종을 많이 찾는다. 알찬꼴을 시작으로 누리꼴이 최근 출시되어 농민들의 관심이 더 커짐에 따라 더기반은 농가들을 대상으로 신품종의 정보를 직접 전하고 탁월한 참외 종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돋는 영농 지

원 활동을 3월 22일부터 2박 3일 동안 진행했다. 전국 지점에서 모인 영업사원들은 성주군을 면 단위로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농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좋은 참외 종자 보급을 약속했다. 이번 영농 지원 활동은 앞으로 출시될 더기반의 참외 품종에 대한 믿음을 더욱 굳힐 수 있는 기회이자 정보 제공의 시간이었다.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라オス 전문 농업 인력 양성 프로그램' 진행

더기반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IBS(포용적 비즈니스 프로그램) 파트너 기업으로 선정되어 라オス 현지에서 육묘 및 재배 방법에 대한 기술 교육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현지의 농촌을 개발하여 농업 생산량을 늘리고,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동시에 농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교육 진행 일정에 맞춰 더기반의 생산기지를 찾은 한국 국제협력단의 김명진 소장과 김나영 부소장은 종자 사업의 성과와 생산 기술 보급에 대한 진행 상황을 체크하며 양사의 목적과 방향성에 대해 기대를 나타냈다. 더기반은 라オス 농림부의 농업 개발 전략에 부흥하는 한국형 농업 개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산 종자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NEWS BRIEFING



더기반의 재배 작물로 사회공헌 확대



기반테크,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 효율성 Up

더기반의 재배 작물로 사회공헌 확대

지난 3월, 더기반은 안성에 위치한 보육원 신생동산에 직접 재배한 작물 나눔을 재차 실시했다. 더기반은 지난해에도 같은 곳에 멜론을 후원한 바 있으며 올해에도 멜론 등 품질 좋은 과일을 전달, 재원생과 교사들에게 행복한 시간을 선물했다. 더기반은 앞으로도 연구소에서 생산되는 토마토와 배추 등 우수한 품질의 작물을 보육원에 지속적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더기반은 종자, 육종 연구 사업을 위해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며 참외와 토마토 등 대표적인 작물 브랜드를 비롯해 해외 수출을 위해 토마토, 고추, 오이, 양배추 등을 연구 개발하고 있다.

(주)기반테크

스마트팜 시스템으로 농업 생산 효율성 Up

농업 기술 전문 계열사 기반테크가 스마트팜 사업 확장을 추진한다.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은 온도, 습도, 환기, 채광 등 농장물의 생육 환경을 실시간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기후 변화 속에서도 재배 환경을 유지하고 적은 노동량으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 관련 시장이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기반테크는 농협 스마트팜 플랜트 사업 제1호 모델인 경북 영천 온

실과 농업기술센터 등에 관련 시스템을 설계 시공했다. 또 지난해 음성군 친환경에너지타운의 온실을 준비하고, 새만금 온실을 위한 용수 공급 방안 및 에너지 절감 기술을 연구하는 등 각종 정부 과제에 참여했다. 해당 사업은 농촌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농촌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농협이 추진 중인 '100년 농촌 운동'의 일환으로 보급형 스마트팜 모델을 발굴하고 2027년까지 스마트팜 선도 농가 300가구를 육성하는 핵심 과제 중 하나이다. 최근 일반 농가 외에도 중공업 등 다양한 산업에서 스마트팜 기술 문의가 늘어나면서 기반테크는 시장 니즈에 맞춰 설계도면 제작, 공사, 유지 보수 등 최적의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반테크는 생산성을 높이면서 동시에 온실가스를 줄여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친환경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2014년 설립된 기반테크는 표면(Surface) 코팅 기술과 스마트팜 기술을 바탕으로 농업 관련 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있으며, 고온방제를 위한 온실용 차광제, 가축용 차열제, 비료 코팅, 종자 코팅 등 다양한 기능성 농자재의 개발 및 보급에 힘쓰고 있다. 기반테크는 2021년 농협의 보급형 스마트팜 시범사업 파트너로 선정됐고, 2022년 농협네트웍스와 협력하여 스마트팜 사업을 실시했다.



2023 봄호 사보를 즐겁게 읽어주신 독자들께
퀴즈를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아래 퀴즈의 답을 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10분께 5만 원권 문화상품권을 선물합니다!

TIP 답은 블 사보 안에 있습니다!

Q

온라인에서 열린 2023년 노루페인트 세미나에서는 올해의 슬로건인 'NEXT LEVEL'과 함께 다양한 신제품을 발표했습니다. 그중 유성 스테인 수준의 우수한 내구성과 내후성, 수성 스테인의 작업성과 USDA 인증의 친환경성까지 보유한 프리미엄 수성 스테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 ① 더 스타일
- ② 더 스테인
- ③ 더 루테인

*5월 31일까지 chan@noroo.com으로 정답을 적어 보내주세요.

*메일의 제목은 '2023 봄호 사보 퀴즈 정답'으로 보내주세요.

*당첨 개별 연락을 위해 연락처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10분께는 문화상품권 5만 원권을 선물 드립니다.

NOROO

NOROO 그룹 사보 | 통권 66호(비매점)

종별: 정보간행물(계간) 등록번호: 안양 바00022 등록연월일: 2019년 3월 15일 발행일: 2023년 5월 3일 발행처: (주)노루홀딩스

법정대표인: 강태준 편집인: 정석찬 기획 및 디자인: (주)커뮤니케이션, (주)노루로지넷 사진: URL 스튜디오 인쇄: (주)대한프린터

발행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351 문의: 02-2191-7700